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46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특 독서 주제통합 05 p.242~246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한비자는 전국 시대 제자백가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학자이다. 그는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전제하에, ㉠유교의 인의(仁義)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는 공자의 수준을, 백성들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평화로울 때는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국가가 위협에 빠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악행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에 맞는 현실적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한비자』이다.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 질서이자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고,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비자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통치론을 펼쳤다. 한비자는 누구나 부, 고귀함, 장수 등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함,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어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므로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비자는 유가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려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 그는 통치자가 노자의 도 개념에 근거하여 자연적 이면서 동시에 명시적인 법,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통치자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치자는 신중해야 하고,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도 안 되며, 음악이나 유희에 탐닉해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虛靜)'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허(虛)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정(靜)을 독실히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한비자는 이를 통치 철학에 적용하여, 통치자가 마음을 텅 비우면 고독한 지위에서도 실제의 정황들을 알 수 있고 통치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 자발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직무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라고도 강조하였다.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론은 법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자 했던 군주에게 채택되어 중앙 집권적 제국을 이루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정치 사상가이다. 『군주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국가 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으로 이해되어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의 통치론을 중세 시대 이후의 15세기 르네상스의 영향하에서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군주론』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의 존재인 신을 대리하는 인간으로 규정하였다. 군주는 신을 대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이며, 세계의 근원이자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이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군주의 역량이란 신에 의해 부여된 비범한 것으로서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며,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으로 운명의 힘과 대결하여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주가 어떤 전략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 잘 예측하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명에 굴복하게 되므로 군주는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에서 통치자의 유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인간 본성이 어떠한지는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군주가 통치자로서 미덕을 멀리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는 유덕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정치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을 넘어서더라도 권모술수와 무력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전쟁이 군주의 제일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군주가 군무를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되므로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통해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에는 군주가 그 집행을 신하에게 위임하되,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도 충고하였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지만 당대의 시각에서 보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정치론이 아닌 현실적인 통치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의 저서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를 설명하고 이 저서에 언급된 학자들의 이론을 열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 입장을 반박하는 학자의 주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정치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이 학자의 통치론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정치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견해가 지니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비자는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한비자는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③ 한비자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④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개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군주는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뜻과 신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군주가 신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은 인간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수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도 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은 국가의 어느 누구와도 우위를 겨룰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통치자의 유덕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혼란상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은 (가)의 '한비자'와 (나)의 '마키아벨리'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 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비자: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①

마키아벨리: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인 통치자에게만 부여되고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비자: 이때 통치자가 제정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악행에 대한 처벌 방식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마키아벨리: 그렇지만 통치자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법에 의거하지 않고도 사회 구성원을 벌할 수 있습니다. . . ④

한비자: 처벌의 방식이나 정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통치자는 그 처벌을 신하에게 맡겨 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⑤

5. <보기>의 (A)~(C)를 밑줄의 (가), (나)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관(棺)을 짜는 목수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목수가 악당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목수는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B) 천 길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백 척 되는 궁실도 굴뚝 틈새기에서 새나오는 연기 불 때문에 타 버린다. 그러므로 백규가 제방을 돌며 구멍을 메우고 노인이 불을 조심하여 굴뚝 틈새기를 진흙으로 발랐다. 이런 까닭에 백규는 홍수 피해가 없었으며 노인에게는 화재 염려가 없었다.

(C) 수레바퀴에는 서른 개의 바퀴살들이 바퀴 중심에 있는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다. 이 바퀴통은 텅 비어 있어 여기에 축을 꽂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 네 개의 수레바퀴의 가운데에 있는 텅 빈 공간은 바로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효용의 근원이다.

- ① (A)-(가):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목수는 사악함이 아닌 이기심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A)-(나): 관을 짜는 목수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B)-(가): 구멍을 메워야 홍수를 막을 수 있고 틈새기를 막아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큰일을 예방하기 위해 통치자가 신중하게 국가의 일을 살펴야 한다고 보는 시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B)-(나): 백척 되는 궁실도 연기 불 때문에 타 버린다는 것은 군주는 위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치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C)-(가): 바퀴살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바퀴통이 텅 비어 있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시행해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친구에게서 모자라는 돈을 취했다.
- ② 나는 이번 여름 방학에는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 ③ 그녀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 ④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 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당장에라도 뛰어나갈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